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인과 고려인이 사리를 가져온 까닭은?

부처님 사리는 그 자체로 法이기에

미얀마에 모셔진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한국불자들. 부처님 육신사리는 그 가르침과 함께 신앙의 일종으로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됐다. 현재도 부처님 육신사리 친견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을 짓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불법 전파에 육신 사리 일조
신라 유학승 통해 한반도 도래
〈전후소장사리〉에 기록 집성
사리에 대한 국민신앙 반증

1. 사리란 무엇인가

사리란 인체를 다비(화장)한 뒤 남은 뼈 혹은 뼈조각을 가리킨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장(火葬)을 해 왔다.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갈등 중 특히 화장법은 큰 문제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효경』(孝經) 이래 "몸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매장을 해 왔기 때문에 화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죽은 이후에는 가벼운 하늘적 요소인 '혼'은 날아가고 무거운 땅적 요소인 '백'은 흩어진다[魂飛魄散]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분리[心身二元]를 역설하는 불교와 달리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心身一元]고 보았던 유교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불교는 '불효'로 이해하는 유자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체의 생명체'로까지 효의 대상을 확장한 '대효'(大孝)를 역설하였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유교적 관점과 달리 '내가 부모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한다. 동시에 생명 탄생의 세 가지 조건을 1) 부부의 성교(性交)와 2) 어머니의 임신 주기 및 3) 간다바(내 전생의 業識)로 해명한다. 즉 나의 업식이 현재 사랑을 하고 있는 미래의 내 부모 후보들을 엿보고 있다가 나와 '향기'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현재와 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를 선택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나이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부모를 선택한 것도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나를 낳은 주체로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인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할 도리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내가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연이 되어준 이들이므로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었던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과 같이 윤회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비롯하여 성문, 연각, 보살, 부처도 받들고[孝] 따르는[順] 마음[心]을 지녀야 하며, 나아가서 이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의 모든 생명체들과 비생명체들에게까지 효순하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삼라만상과 두두물물 모두를 받들고 따르는 이러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역설하고 있다.

붓다는 세상을 떠나기 전 출가자들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장례는 재가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여덟 나라의 국왕과 늦게 온 두 나라의 국왕들이 붓다의 열반 이후 처리를 도맡았다. 사리는 여덟 나라로 분배되었고 늦게 온 두 나라의 국왕들은 '재'[恢]가 된 붓다의 육신과 그 사리를 담은 '병'(甁)을 모신 탑들을 세우고 붓다를 예경하였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에 의해 이들 사리는 다시 분봉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붓다의 사리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면서 점차 붓다 제자들의 사리에 대한 신앙도 생성되었다.

붓다를 따르던 불자들은 붓다의 입멸 이후 붓다의 법신사리(法身舍利) 즉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經典)을 배우고 실천하였다. 경전은 암송(暗誦)과 구전(口傳)에 의해 인도에서 네 차례 결집되었고 19~20세기 이래 미얀마에서 두 차례 결집되었다. 인도에서 처음 결집된 경전은 오랜 뒤에 북방에서 한역되어 『장아함경』, 『중아함경』』『잡아함경』, 『증일아함경』으로 편찬되었고 남방에서는 속어인 마가다어와 쁘라끄리띠어로부터 파행된 팔리어로 번역되어 『디그하니카야』(長部), 『맛즈히마니카야』(中部), 『상윳타니카야』(相應部), 『앙굿따라니카야』(增支部), 『코다카니카야』(小部) 5부로 편찬되었다. 남방의 제5부에 편입된 15경은 북방에는 3종 만이 번역되었다. 이들 법사리들은 오랫동안 불자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탄생하면서 이들 법신사리들은 육신사리와 동시에 경배되기 시작했다.

2. 신라대에 전해진 사리

중국과 티베트 및 몽골 등으로 전해진 붓다의 몸에서 나온 육신사리에는 머리뼈와 치아 사리도 있었다. 이들 육신사리는 법신사리와 함께 다시 이웃나라로 전해지면서 불교는 세계 종교로서 거듭 나기 시작했다. 붓다의 가르침이 아시아에서 널리 전해진 것은 법신 사리뿐만 아니라 육신사리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 대승불교 이후 인도에서 붓다는 힌두교의 열 세 번째 신으로서 자리했지만 북방으로는 독립된 성자로서 널리 알려졌다. 그의 가르침은 실크로드와 차마고도 등을 타고 육신사리와 함께 더욱 더 널리 퍼졌다. 특히 서진(西晋)과 동진(東晋) 이후 남북조 시대로 분기하면서 서위(西魏)와 북위(北魏) 및 동위(東魏) 그리고 수당 시대에 걸쳐 돈황 막고굴을 비롯한 무수한 석굴사원과 불교사원에서 꽃을 피우면서 세계 종교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자리잡았다.

붓다의 사리는 신라시대부터 중국의 사신들과 신라의 유학승들에 의해 전해지기 시작했다. 신라 진흥왕 때(549)에는 남조의 양나라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 몇 알을 보내왔고, 양[당]나라로 유학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유학생 안홍(安弘, 安含)이 서역의 세 나라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과 함께 불사리를 바쳤다. 선덕여왕 때에는 자장(慈藏)법사가 부처의 머리뼈와 부처의 치아와 불사리 1백 알 및 붓다가 입던 붉은 비단에 금색 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져왔다. 이들 사리는 셋으로 나누어 한 몫은 황룡사 탑에, 한 몫은 울산의 태화사 탑에, 한 몫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봉안하였다. 또 신라의 의상은 상제(上帝)로부터 전해 받은 붓다의 어금니 사리를 맞아 대궐에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智儼)존자가 계신 곳에 이르렀다. 이때 이웃에 있는 도선율사[宣律]는 언제나 하늘의 공양[天供]을 받아먹었다. 매번 재를 올릴 때에는 하늘 주방[天廚]으로부터 음식이 보내졌다. 하루는 도선이 의상을 청하여 재를 드리는데 의상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은 때가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의상이 공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천사가 그때야 내려왔다. 도선이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온 동네에 신병[神兵]들이 꽉 들어차 막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도선은 의상법사가 신병의 호위를 받고 있음을 알았다. 도선은 의상의 도가 자기보다 나은 것에 탄복하고 하늘에서 가져온 음식을 그대로 두었다. 이 이야기는 뒷날 낙산사에 머물던 의상을 찾아갔으나 원효를 뒤따르는 호법신중[神兵]이 계곡을 막아 공양을 가져오지 못하자 원효가 공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각색되어 있다.

이튿날 도선은 지엄과 의상 두 법사를 청하여 재를 올리며 그 전말을 자세히 얘기하였다. 의상이 조용히 도선에게 말하였다. "율사께서는 이미 천제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일찍이 들으니 제석궁에는 부처님의 치아 40개중 어금니 하나[一牙]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천제께 이것을 인간에게 내려주기를 청하여 복되게 함이 어떻겠습니다?" 도선이 뒤에 천사와 함께 이 뜻을 상제께 전하자 상제는 7일 기한으로 이것을 보내주었다. 의상이 경의를 표한 뒤에 이를 맞아서 대궐에 모셨다. 신라의 의상이 모신 대궐은 신라의 대궐이 아니라 당나라 대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라 승려의 청에 의해 상제가 내려 주었다면 이것은 신라 의상이 붓다의 어금니 사리에 감응을 받았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려대에 전해진 사리

송나라 휘종(徽宗) 때에 이르러 도교를 숭상하여 받들자 당시 나라 사람들이 예언하여 말하였다. "금인(金人)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도교의 무리들이 일관(日官)을 충동하자 일관이 임금에게 말씀드렸다. "금인이란 불교를 말하는 것이니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의논하여 앞으로 불교를 없애고 승려들은 모두 땅에 묻어 죽이고 경전을 불사르기로 했다. 그리고 작은 배를 따로 만들어 붓다의 어금니를 실어 큰 바다에 띄워 인연이 닿는 데로 흘러가게 했다. 그때 마침 송나라에 갔던 고려 사신이 이 사실을 듣고 눈과 같이 흰 모직물[天花茸] 50령과 3백 필을 배의 책임자인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부처의 어금니를 받고는 빈 배만 띄워 보냈다.

사신들이 이미 붓다의 어금니를 얻어 가지고 와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이에 고려 예종이 크게 기뻐하며 십원전(十員殿) 왼쪽에 있는 작은 전각에 모셔 두게 하고 늘 전각의 문을 잠그고 밖에는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혔다. 왕이 몸소 거둥하는 날에만 전각문을 열어 공손히 예를 올렸다. 하지만 몽골군이 고려에 쳐들어와 국토를 초토화시키자 고종은 임진년(1232)년에 수도를 강화로 옮겼다. 경황 중에 내관들은 사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병신(1236) 4월에 임금을 위하여 세운 절인 신효사(神孝寺)의 승려 온광(溫光)이 붓다의 어금니에 치성을 올릴 것을 청하였다. 이 사실을 왕에게 말씀드렸다. 왕이 대궐 안의 신하에게 명하여 궁중에 두루 찾아보도록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조차 오랫동안 찾지 못하자 내신(內臣) 김승로(金承老)가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진년에 수도를 옮길 때의 궁중일기인 『자문일기』(紫門日記)를 조사해 보소서." 왕이 그 말대로 따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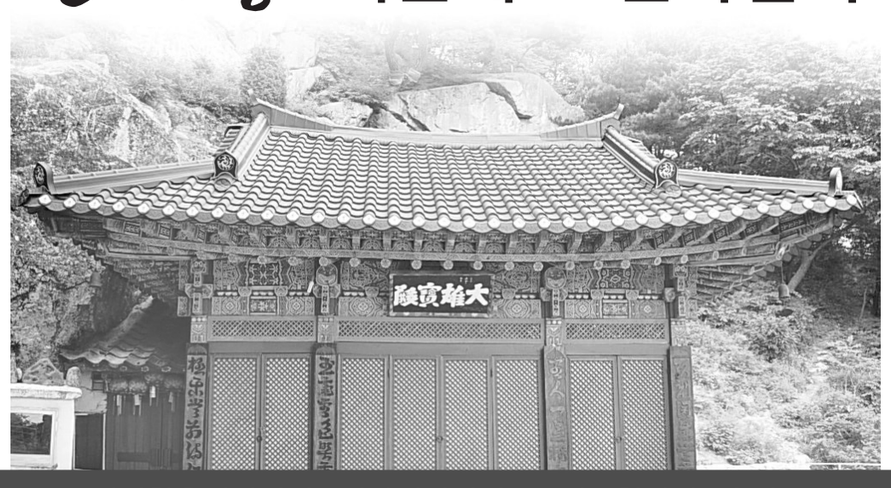
일기에는 '궁중에 들어와 시종하던 대부경(大府卿) 이백전(李白全)이 부처님 치아를 넣은 함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이백전을 불러 힐문하자 대답하였다. "집으로 돌아가 다시 제가 기록한 것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러고는 집에 가서 좌번 알자(謁者) 김서룡(金瑞龍)이 부처님 치아가 든 함을 확실히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가지고 와서 보였다. 김서룡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임진년부터 변신년까지 5년간 대궐 내의 불당과 결영전에 근무한 자를 잡아 가두고 심문했으나 서로 말이 달라 결말을 내지 못했다. 3일 뒤에 서룡의 집 담장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다. 대대적으로 조사해 보자 곧 붓다의 치아가 든 함이었다. 함의 바깥 겹은 흰 은으로 되었고, 그 다음의 바깥 겹은 유리함으로 되었고, 그 다음 바깥 겹은 나전함으로 되었으며 각 함의 폭은 서로 꼭 맞게 되어 있었다. 지금은 단지 유리함 뿐이었다. 사리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여 대궐로 들어가 보고 하였다. 담당 관원들이 의논하여 김서룡과 두 전각에 근무한 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다. 당시 실권자였던 진양부(晉陽府) 최우(崔瑀)가 고종에게 말씀드렸다. "불교에 관한 일로 여러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서 모두 죽음을 면하였다.

고려조에 지방장관이었던 두 명의 안렴사가 잇달아 와서 통도사 금강계단의 돌 뚜껑을 열어 경배하였는데 처음에는 긴 구렁이가 돌함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는 큰 두꺼비가 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뒤 고종의 명을 받고 상장군인 김이생(金利生)과 시랑(侍郎)인 유석(庾碩)이 통도사 금강계단의 돌 뚜껑을 들로 예를 올리며 살폈더니 그 속에는 돌로 된 작은 함 속에 유리통이 있고 통 속에는 단지 네 개의 사리(舍利)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붓다의 육신사리와 법신사리는 신라대와 고려대에 중국 사신이 보내오거나 우리나라 승려들이 가서 받아왔다. 『삼국유사』「탑상」편의 가장 긴 조목에 해당하는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 舍利)에는 신라와 고려대에 전해진 사리 관련 기사를 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리에 대한 태도와 사리의 증감에 대한 깊은 반응을 적고 있어 당시 사리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신앙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연(一然)은 「의상전」과 「부석본비」에 의거하여 의상의 생년과 출가년 및 원효와 의상의 두 차례 유학 과정을 적고 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무극은 이 조목에도 개입하여 자신의 기록[無極記]을 남기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